

2017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제2외국어/한문)

한문 I 정답

1	④	2	②	3	⑤	4	③	5	②
6	②	7	⑤	8	④	9	②	10	①
11	④	12	⑤	13	①	14	②	15	①
16	⑤	17	①	18	③	19	②	20	④
21	③	22	⑤	23	①	24	⑤	25	③
26	④	27	③	28	④	29	③	30	③

해 설

- [출제의도]** 한자의 특징을 안다.
‘찾다’를 뜻하는 ‘探’을 찾는다.
- [출제의도]** 한자의 특징을 안다.
주어진 조건에 맞는 한자는 ‘알리다(告)’이다.
- [출제의도]** 한자의 특징을 안다.
㉠ ‘晴’ 개다(청), ㉡ ‘靜’ 고요하다(정)
- [출제의도]** 한자의 특징을 안다.
ㄱ. 부지런하다 - 게으르다, ㄴ. 쉬이다, ㄷ. 정하다, ㄹ. 아침 - 저녁
- [출제의도]** 어휘와 의미를 안다.
① 실각: 세력을 잃고 지위에서 물러남. ② 별세: 윗사람이 세상을 떠남. ③ 탈피: 일정한 상태나 처지에서 완전히 벗어나. ④ 순종: 순순히 따름. ⑤ 무산: 안개가 걷히듯 흩어져 없어짐.
- [출제의도]** 어휘와 의미를 안다.
① 입문, ② 동창, ③ 학우, ④ 모교, ⑤ 친구
- [출제의도]** 성어의 의미를 안다.
가로 열쇠는 ‘기호지세(騎虎之勢)’이고, 세로 열쇠는 ‘파죽지세(破竹之勢)’이다.
- [출제의도]** 어휘와 의미를 안다.
① 기부, ② 보호, ③ 봉사, ④ 질서, ⑤ 검소
- [출제의도]** 한자 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한다.
한국, 중국, 일본의 한자 발음은 모두 다르며, 표기도 다른 경우가 있다. 한자로 표기하는 어휘 중 의미는 같지만 한국, 중국, 일본에서 다르게 표기하여 사용하는 것이 많은데, 이를 통해 상호 간의 문화를 이해하는 문항이다. 제시된 중국어는 한국어의 ‘엽서’에 해당한다.
- [출제의도]** 한자 어휘를 활용한다.
① 임의청가, ② 금성작무(소리 없이 춤추기), ③ 농면공과(얼굴을 간지럽혀도 가만히 있기), ④ 음진대소(술잔 비우고 크게 웃기), ⑤ 중인타비(여러 사람이 코 때리기)
- [출제의도]** 성어의 의미를 안다.
여덟 개의 글자 중 네 자를 골라서 성어를 완성하고, 그 속뜻을 찾아내는 문항이다. 제시된 글자로 만들 수 있는 사자성어는 ‘회자정리(會者定離)’이다.
- [출제의도]** 성어의 의미를 안다.
⑤ 골육상잔은 ‘가까운 혈족끼리 서로 싸움’을 뜻하는 성어이다.
- [출제의도]** 단문을 읽고 풀이한다.

나를 버리고 남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배우는 사람의 큰 병폐이다. 천하의 의리가 끝이 없는데, 어찌 자기를 옳다 하고 남을 그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

- ① 무궁, ② 신중, ③ 염치, ④ 편견, ⑤ 회비

14. [출제의도] 성어의 의미를 안다.

- ② 만시지탄은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한탄’의 뜻이다. ① 목불인견, ③ 후생가외, ④ 보원이덕, ⑤ 평지풍파

15. [출제의도] 단문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 ① 백번 누여야 실은 하얗게 되며, 천 번 갈아야 거울은 비로소 밝아진다. ② 군자는 미연에 방지하니 의심 받는 곳에 처하지 않는다. ③ 남에게 (좋은) 말을 주는 것이 금덩이나 옥구슬보다 소중하다. ④ 남과 함께 거처할 때 자신의 편리함을 가려 취해서는 안 된다. ⑤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고, 날이 오래 되어야(세월이 흘러야) 사람의 마음을 안다.

16. [출제의도] 단문을 읽고 풀이한다.

- ① 교만은 손해를 부르고, 겸손은 이익을 받는다. ② 뜻이 있는 사람은 일을 마침내 이룬다. ③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꾀하지 않는다. ④ 집이 만약 가난하더라도 가난 때문에 배우기를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⑤ 손해되는 사람과 함께 처하면 이름이 절로 낮아지고 몸이 절로 천해진다.

17. [출제의도] 단문을 읽고 풀이한다.

의복이 오염된 곳이 있으면 한 번 씻어 제거할 수 있으나 시대의 습속이 한 번 오염되면 백 번 씻어도 제거되지 않는다.

18. [출제의도] 단문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오늘 배우지 않고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금년에 배우지 않고 내년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 ① 부유함은 집을 윤택하게 하고 덕은 몸을 윤택하게 한다. ② 어두운 곳에 거처해도 밝은 곳처럼 하고 혼자 거처할 때도 여럿이 함께 있는 것처럼 하라. ③ 때에 미쳐 힘써야 마땅하니 세월이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④ 물은 네모나거나 둥근 그릇을 따르고, 사람은 착하거나 나쁜 친구를 따른다. ⑤ 과거의 일은 밝은 거울과 같고, 미래의 일은 옷칠과 같이 어둡다.

[19 ~ 20]

이지함에게 <중략> 아산 현감의 벼슬이 내려지자 백성들을 모아 놓고 괴로움을 물으니 물고기 키우는 연못을 괴로움으로 여김이 있었다. 대개 읍에는 물고기를 키우는 연못이 있어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가면서 물고기를 잡아서 바치게 하니 백성들이 그것을 매우 고통스러워 하였다. 지함이 이에 그 연못을 막아(매워) 영원히 후환을 없앴다. <중략> 공이 떠도는 백성이 해진 옷을 입고 밥을 빌어먹는 것을 불쌍히 여기어 큰 짐을 지어 그들을 목게 하였다.

19.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 ㉡과 ㉢의 행위 주체는 백성이다.

20.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21 ~ 22]

천하의 넓은 집에 거처하며, 천하의 바른 자리에 서며, 천하의 큰 도리를 행하여 뜻을 얻으면 백성과 함께 (도를) 행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그 도를 실천한다. 부귀도 방탕하게 할 수 없고, 빈천도 (절개를) 변하게 할 수 없으며, 위무가 (지조를) 굽히게 할 수 없으니, 이를 대장부라 하는 것이다.

21. [출제의도] 산문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맹자는 뜻을 얻지 못하더라도 당당하게 행동해야 진정한 대장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2.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23 ~ 24]

이항복이 재상의 지위에 있을 때 벼슬이 높은 관리가 찾아와서 뵈어도 모두 앉아서 절을 받았다. 하루는 신혼도가 문 앞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공이 맨발로 걸어 나가 맞아들여 마루에 오르게 하고, 머리 숙여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며, 응대함이 매우 공손하였다. 집안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물어보니 이분은 공이 어렸을 때 학업을 가르쳐 주신 분이라고 하였다.

23.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24.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25 ~ 27]

변방 주변 가까이 사는 사람으로 점술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의 말이 이유 없이 도망쳐 오랑캐 땅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위로하니 그 노인이 말했다. “이것이 어찌 복이 되지 않겠는가?” 몇 개월이 지나서 그 말이 오랑캐의 준마를 데리고 돌아왔다.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축하하니 그 노인이 말했다. “이것이 어찌 화가 되지 않겠는가?” 집에 좋은 말이 많고 그 아들이 말타기를 좋아하여 떨어져 넓적다리가 부러졌다. 사람들이 모두 이를 위로하니 그 노인이 말했다. “이것이 어찌 복이 되지 않겠는가?” 일 년이 지나서 오랑캐가 크게 변방을 쳐들어오니 장정들이 활시위를 당겨 싸워서 변방 가까이의 사람들이 죽은 자가 열에 아홉이었으나 이 사람은 홀로 절름발이인 까닭으로 부자가 서로 (목숨을) 보존하였다.

25.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 ㉢은 ‘거느리다’의 뜻이다.

26. [출제의도] 단어의 짜임을 안다.

- ① 술보 관계, ② 주술 관계, ③ 술목 관계, ④ 수식 관계, ⑤ 병렬 관계

27.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28 ~ 30]

(가) 손에 가위 쥐고 (옷감을 마름질하니)/ 추운 밤에 열 손가락이 꽃듯해지네./ 남들 위해 시집갈 때 입는 옷을 짓지만,/ 해마다 (이 몸은) 도리어 홀로 잔다네.
(나) 평지나 산꼭대기 가리지 않고,/ 무한한 풍광 모조리 차지하였네./ 온갖 꽃을 찾아 꿀을 만든 후에,/ 고생은 누가 했는데, 단맛은 누가 보나?

28. [출제의도] 한시를 읽고 풀이한다.

尖은 ㉢에서 ‘꼭대기’로 쓰였다.

29. [출제의도] 한시를 이해하고 감상한다.

30. [출제의도] 한시를 이해하고 감상한다.

(가) 시는 가난하기 때문에 시집도 가지 못하고 힘들게 일만 하는 외롭고 고단한 여인의 삶을 여성의 입장에서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손이 굳어질 정도로 힘들게 남을 위한 혼례복을 만들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결혼하지 못하고 홀로 잔다는 표현에서 가난한 여인의 아픔이 절절하게 드러난다. (나) 시는 꿀벌이 사방으로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꿀을 채집하지만 그 꿀은 정작 벌들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수고로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이익을 얻지 못하고 엉뚱한 자가 그 이익을 취하는 불공평한 사회상을 풍자하고 있다.